예술의전당 전관 개관 30주년 특별 음악회

최희연 피아노 리사이틀

글 *김희선* 사진제공 *예술의전당*

올해 전관 개관 30주년을 맞은 예술의전당이 선보인 기획 공연 시리즈, 그 대미를 장식할 무대는 중견 피아니스트의 대표주자인 최희연의 단독 리사이틀이다. 프로그램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
그녀에게 바흐의 손꼽히는 마스터피스이자 많은 사랑을 받는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를 질문하자, "우연인지 필연인지 인생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늘 곁에 있었다"는 답이 돌아왔다. 운명 같은 작품 '골드베르크'에 대해, 새로운 학교에서 첫 학기를 보낸 소감에 대해 그녀와 이메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제와 30개에 달하는 변주로 구성된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연주 시간이 1시간에 달하는 대곡입니다. 무엇보다 그 촘촘한 구조와 자연스러운 흐름, 무한한 상상력에 감탄을 금할 수 없는데요, 실제로 후대 작곡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바흐이기에 이 작품은 감흥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참 소소한 세 박자의 사라방드입니다. 그다음엔 변주 – 비르투오조 변주 – 캐논, 이렇게 세 변주가 한 그룹을 이루지요. 이 그룹은 계속 10회를 순환하는데 각 그룹의 첫 변주는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마지막 변주 '30번'은 배꼽을 쥐게 하는데, 바흐가 차용한 두 주제가 '나 너를 본 지 오래되었어, 이리 오게, 이리 와' 그리고 '양배추와 무가 나를 도망가게 했지, 어머니가 고깃국을 끓였으면 내가 더 머물렀을 텐데'라는 독일 민요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거룩'과는 전혀 거리가 먼 노래들을 돌려가며 부르던 전통이 유럽에 있었죠. 이렇게 신나게 모든 변주를 끝내면, 주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크게는 주제-변주-주제, 세 도막 구조인 겁니다. 바흐 시대에 3은 성 삼위일체를 상징하고 '완벽'을 의미하며, 독일에는 '모든 좋은 것은 다 셋'이라는 격언도 있습니다. 이 변주곡의 구조가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의미하죠.
변주 그룹이 순환하면서 주제는 끝도 없이 진화하는데, 베이스라인과 화성은 그대로인데도 매번 완전히 새로운 창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순환하다 보면 나중에는 시간을 잊게 되고 그 흐름이 미학적으로 너무 완벽해서 눈물이 납니다. 맑고 순결한 사장조 변주 속에 간간이 '죽음'을 의미하는 사단조 변주가 등장하는데 그 배치도 미학적으로 완벽하여 경이롭습니다.

그 중에서 혹시 유독 애정이 가는 변주가 있으실까요?

단조 변주중의 마지막인 '25번 변주'가 가장 특별합니다.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로 읊조리고 솟구치고, 나락으로 떨어지며 마치 골방에 들어가 오롯이 신 앞에 토로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26번 변주'는 죽음 후 분진처럼 된 육체가 다시 모여서 회복되는 것 같은, 부활과 같은 이미지, 저 먼 하늘에 천군만마가 구름 먼지를 일으키며 멀리서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변주곡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순간입니다.

이 모든 변주를 마치고 껄껄 웃는 퀴들리벳(Quodlibet)으로 마무리를 짓고 다시 돌아온 주제는… 처음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주제인데도 말이죠.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모멘트, 그때 느끼는 묘한 감정과 비슷해요.

선생님을 대표하고 여전히 집중하고 계신 베토벤 소나타와의 연관성을 묻고 싶습니다. 예전 한 인터뷰에서 베토벤 작품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새로운 시선으로 작품을 바라보고 연주하게 됐다고 하셨는데요, 음악의 구조를 형성하는 기본적 요소라 할 수 있는 대위법이나 화성법을 확립한 바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이론적(또는 이성적) 접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바흐를 해석하는데 대위와 화성적 접근은 너무나 절대적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이론적 접근이 그렇게 지루하거나 무미건조한 것은 아니에요. 완전한 희열이죠!!

그리고 베토벤이 실제로 말년에 시선을 바흐에게 돌렸어요. 피아노 소나타뿐만 아니라, 첼로 소나타, 현악 사중주에 푸가가 들어가고 변주 악장이 들어가고, 아예 바흐의 구절을 그대로 삽입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베토벤의 광기 어린 현악 사중주 <대푸가>는 개인적으로 바흐에 대한 베토벤 방식의 오마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베토벤의 후기 작품을 공부할 땐 바흐를 계속 참고해야 하고 초기 작품은 바흐의 아들 칼 필립 엠마누엘 바흐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작품은 당시의 건반악기였던 하프시코드를 위한 곡입니다. 바흐의 기악음악을 현대 악기로 연주하는 데 있어 원전 악기를 이해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면서 한편으로는 자유로워져야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바흐는 악기에서 자유롭답니다! 업라이트에서 쳐도, 전자 피아노도, 심지어 장난감 피아노로도 칠 수 있어요. 오르간, 첼발로 무엇이든 건반악기면 다 별문제가 없어요. 바흐의 미학은 소리의 '아름다움', '의미'보다는 소리의 '어울림', '짜임새'가 우선이 되기 때문이지요. 원전 악기의 소리, 주법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은 되지만 전혀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악기를 건너다니는 것은 바로크 시대 음악에서 놀라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 '골드베르크'처럼 사랑받는 마스터 피스는 편곡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음악을 소비하는 방법이었죠.

기술뿐만 아니라 정신과 영혼을 담는 음악에 있어 사제관계, 음악적 계보는 단순히 취향이나 스타일을 구분 짓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지난 9월부터 미국 피바디 음악원에서 교육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신데 전반적인 소회와 함께 음악을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곳 학생들은 성숙하고, 본인들이 할 바를 잘 알고 있으며 질문이 많습니다. 또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모여있다 보니 문화, 철학에 대한 얘기를 나눌 때가 많아요. 아직은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배워가는 중이지요. 고무적인 것은 학생들이 '한국 피아니즘'에 관심이 많고 '한국 문화'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교육은, 개인별로는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제가 볼 때, 음악은 예술 중에서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음악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인류의 멈출 수 없는 활동입니다. 모든 음악인은 이러한 음악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연주자들의 활동이 나날이 주목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다음 세대의 음악인을 양성하는 데 있어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 절실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인문학이죠. 음악은 미학, 철학, 역사, 수학, 문학과 한 몸이니까요. 이러한 문화적 내공이 사회적으로 절실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연주도 피겨스케이팅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공연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전할 메시지와 계획 전해 주시죠.

2024년이 제가 인천시향과 데뷔한 지 어느덧 50년이 되는 해에요. 그리고 지난 8년간 공을 들여온 베토벤 소나타 전곡 레코딩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계기로 인천시향과의 협연, 제자들과의 베토벤 심포니 연주, 서울·로스앤젤레스·포츠담·빈 등에서의 독주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바라건데 이번 예술의전당 공연을 통해 여러분들과 '골드베르크'의 큰 호흡, 소리의 향연을 나누며 새해를 맞이할 기운을 북돋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